

# 「2021년 ODA 합동 워크숍」 결과보고

국제개발협력센터

2021.8.31(화)

# □ 워크숍 개요

○ 일 시 : 2021. 8. 31(화), 9:00~11:40 / 온라인(Zoom)

○ 주관기관 : 국무조정실

○ 대 상 : 중앙부처,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ODA 담당자

○ 참 석 자 : 국제개발협력센터 전원(센터장 등 8명)

○ 세부일정

시 간		내 용	비고
09:10-09:30	20'	등 록	참석자
09:30-09:40	10'	개회 및 인사말씀	국조실 김영수 국제개발협력본부장
09:40-09:55	15'	ODA 전주기 혁신방향	국조실 장원석 개발협력총괄과장
09:55-10:10	15'	ODA 사업 심사·조정 방향	국조실 박완섭 사업연계조정과 사무관
10:10-10:25	15'	ODA 성과관리체계	국조실 양상근 평가기획과장
10:25-10:30	5'	휴식시간	
10:30-10:45	15'	OECD DAC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및 시사점	외교부 전현진 개발의제정책과 사무관
10:45-11:00	15'	EDCF 유무상 협업 강화 전략	EDCF 한하늬 경협총괄부 차장
11:00-11:15	15'	정부·시민사회와의 협업방안	KCOC 한상필 정책교육센터 과장
11:15-11:35	20'	ODA 통합정보시스템 활성화 방향	국조실 맹준호 성과지원과장 EDCF 정수아 경협총괄부 대리

# □ 주요내용

○ 붙임(2021년 ODA 합동 워크숍 주요내용) 참조

# □ 향후계획

○ 워크숍 발표자료를 ODA 업무에 참고 및 활용하고 워크숍 발표자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. 끝.

# 붙임

# 2021년 ODA 합동 워크숍 주요내용

# □ ODA 전주기 혁신방향(국조실 김용수 국제개발협력 본부장)

#### o ODA 추진체계 개편

-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'10년 1.3조원에서 '19년 3.2조원으로 대폭 증가. '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 목표
- 양적인 확대에 비해 전략 미흡, 유무상 이원화, 분절화, 사후관리 부실 등 문제점 상존. 이에 추진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 지시('17.8, 대통령)
- '추진체계 개편방안'('18.6)에는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, 국제개발 협력기본법 전부 개정, 국제개발협력본부 설치 등 내용 포함

####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주요내용

- DAC 가입('10.1) 계기 국제개발협력법 제정('10.7), '추진체계 개편방안'을 통해 전부 개정('20.11.27)
- 전략수립, 사업조정, 성과평가, 정보관리 기능 추가

# ㅇ 국제개발협력 전주기 혁신방향 및 '21년 주요 정책방향

- 사업 全단계(종합전략수립 → 사업기획·발굴 → 사업심사·조정 → 전략·사업평가)간 상호 환류 및 연계 추진
- 세부 추진전략 수립, 국가협력전략 개선, 패키지사업 기획·발굴, 사업조정 및 심사, 성과관리, 기관역량 진단, 환류 체계화, 전문 인력 양성·활용, ODA 통합정보포털 등을 통해 ODA 업무 전반 혁신 추진

# □ ODA 사업 심사·조정 방향(국조실 박완섭 사업연계조정과 사무관)

### o '22년 ODA사업 전략부합성 심사

- 올해와 유사하게 심사·조정할 예정이나 ① 성과관리와 연계, ② 연계사업 내실화(현장 확인), ③ 패키지사업 기획·발굴을 위한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, ④ 사업분야 심사 기준 명확화 등에 중점

#### ㅇ 국무조정실 협조요청 사항

- 전략부합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발굴 당부
- · 동일 기관내에서도 ODA 과제를 제안할 때 전략부합성을 고려 하지 않고 제안한 사례가 다소 있음
- 키르키즈스탄, 타지키스탄 등 신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적극 발굴 요청
- 연계가능 사업 및 패키지형 사업은 중점지원대상이 되겠으며 반 대로 전략부합성이 낮은 사업은 시행계획 검토 단계에서 제외
- 사업기획 단계부터 성과지표를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충실한 이행 등 성과관리방안 강화 당부
- ODA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ODA 포털 등을 활용하여 정보 공유 요청
- 기본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요건 충족 요청
- · 무관협 제출 공문 등은 시한을 준수하여 제출

# ㅇ 질의응답

- 질문) 현재 논의중인 ODA 사업 심사·조정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? ·답변) 2가지 방식을 고려. ① ODA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종합 시행계획에 연계 반영(계속사업 중심), ② 시행계획 작성시 성과 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(신규사업 중심)
- 질문) 코로나-19, 기후위기, 그린뉴딜, 디지털 등 긴급한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, N-2년 프로세스를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?
  ·답변) N-2 프로세스 한계를 극복하고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일부 긴급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으며 Fast Track 예산(약 20억원)도 활용 가능

# □ ODA 성과관리체계(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부 평가기획과장)

#### o ODA에 대한 이해

- 우리나라는 '00년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고 '10년 OECD DAC 가입과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
  - \* 총 수원규모: 127억불 / 총 공여규모: 256억불('87-'19), '20년 22.5억불

- 우리나라 ODA 규모('21) : 1,682개 사업, 3조 7,101억원(42개 기관)

### o ODA 성과관리체계 주요내용

- (성과관리담당)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전문위원회(위원장 : 국조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)
- (성과관리체계) 사업계획 수립(시행기관) → 심사·조정(주관기관) → 심사·조정·의결(국개위) → 사업시행(기관별 자체수행) → 평가(자체평가\* 및 위원회평가\*\*) → 결과 환류(사업계획 및 정책 수립에 반영)
  - \* '21년 27개 기관, 88개 자체평가 과제 추진
  - \*\* 개선 필요과제 선정, 제3자 평가 실시(연 2~3개 과제)

# ㅇ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('21.5) 주요내용

- (성과관리 강화)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, 성과지표 수립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사업심사 시 종합 검토
- (자체평가 운용 내실화) 핵심사업 중심 과제 선정, 명확한 성과 지표 수립 등 평가계획 내실화(가급적 외부평가 시행), 평가결과 에 따른 이행과제 도출 및 차기 사업기획 수립에 반영
- (기관역량진단 시행)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국개위 평가전문위원회('22년부터 격년 시행)에서 성과관리역량(50%), 자체 평가 적절성(50%) 등을 진단 \* '21년 6개 기관 시범 실시
- (ODA 추진역량 강화) 컨설팅 지원(소규모 ODA 시행기관 대상), 실무자 대상 온/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샵 실시, 평가매뉴얼 업 데이트, 평가 전문인력 풀 제공 등

# □ OECD DAC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및 시사점

(외교부 전현진 개발의제정책과 사무관)

# ○ OECD DAC\*, 회원국간 ODA 평가 상호실시(4~5년 주기)

- \* OECD 산하 DAC(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(개발원조위원회), 30개 회원국)
- '21년 OECD DAC는 우리나라의 '17년 동료검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중간점검 실시

\* 권고 주요내용(12개 항목): ① ODA 시스템개선, ②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, ③ ODA 목표달성 노력 지속, ④ 현지 정책대화 심화, ⑤ 사업기획 다변화, ⑥ 인도적 지원정략 개정 등

#### o DAC 중간점검 주요내용

- (전반적 평가) DAC측은 코로나19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 우리 나라 ODA에 대한 동료검토 권고이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
- (예산확대) '30년까지 ODA 예산 2배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목표치 정기적 검토 권고 및 비구속성 원조 목표치 설정('25년까지 유상 60%, 무상 95%)
- (정책일관성) 한국의 대외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수원국과 협의 강화 권고
- (현장중심성) 원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장중심의 원조 강화
- (인도적 지원 강화) ODA 사업 선정시 인도적 지원 목적 반영 강화
- (역량강화, 평가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) 평가체계 개선 강화 및 개발협력 분야 인원 증원 등

# □ EDCF 유무상 협업 강화 전략(EDCF 한하늬 경협총괄부 차장)

# ㅇ 유무상 연계유형 및 현황

- EDCF 전체 승인 460건 중 135건이 무상 연계사업이며 유무상 연계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
- 연계 유형은 ① 사업준비형(무상기관 MP 및 F/S를 EDCF 인프라 사업으로 연계), ② 운영지원형(EDCF 사업에 대해 무상기관이 운영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), ③ 시범사업지원형(무상원조로추진된 소규모 시범사업을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) 등
  - \* 사업준비형·운영지원형 사업이 97%로 대부분 차지. 주요 협력 무상기관은 KOICA, KSP, KOFIH 등

# ㅇ 유형별 유무상 연계사례

- (사업준비·운영지원형) '케냐 ITS 구축사업'의 경우, KSP 정책자 문결과를 통해 발굴된 사업으로 EDCF가 1·2차사업을 총괄. 이후 KSP가 사후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 단계에 걸쳐 협력 진행

- (운영지원형) '베트남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립사업'은 유상 차 관을 통해 병원을 준공한 이후, KOICA가 병원 경영 컨설팅 및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운영을 지원
- (시범사업지원형) '우즈벡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'은 KOICA의 지역 단위사업을 EDCF가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단위로 확대한 사례

# ㅇ 유무상 협업전략

- 유무상 연계는 '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원회' 심의를 통해 확정 되며, EDCF는 무상기관과의 정례 협의 및 수시 논의를 통해 유 무상 연계 지원
- 유무상 연계전략은 ① 기관협력(각국 사무소를 통해 수원국 현장 인프라 공동 활용), ② 사업협력(단순 사후 연계가 아닌, 예산 매칭 등을 통해 기획단계에서부터의 전 주기적 협업), ③ 금융협력 (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유상 차관을 무상으로 전환하여 수원국의 협력 인센티브 극대화)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
  - \* <전략수립-사업발굴-사업준비-사업실행-운영지원-사업평가> 등 각 사업 단계 에서 보건·인프라·농수산 등 부문별 무상기관과 협업중

# □ **정부-시민사회 협업방안**(KCOC 한상필 정책교육센터 과장)

#### o KCOC 소개

- KCOC(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)는 NGO와의 적극적인 소통,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 중

# ㅇ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ODA 사업현황

- (재원조달) 개인 및 기업 후원이 재원의 대부분 차지
- (추가내용) 정부 지원이 '19년에 크게 증가했으나 '11년부터 재원 확보에 불확실성을 보이다가 '15년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음
- (지출결산) 해외사업비 증가는 단체의 아동후원 증가에 따른 것 으로 분석
- (협력사업) 자체 추진사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

- (대륙별 사업) 1위 아시아(53.8%), 2위 아프리카(27.5%)
- (인도적 지원) '17년 방글라데시 6위, 우간다는 순위에 없었으나, '19년에는 우간다 1위(18.8%), 방글라데시 2위(9.3%)로 순위 이동. 국제적 이슈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큰 것으로 분석됨

#### ㅇ 정부-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협력

- '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2021-2025)'에 따르면, 공공-민간-연구기관의 범국가적 협력 생태계 조성이 미흡한 상황
- 시민사회의 협력이 기존 2%에서 6%로 점진적 확대 필요(OECD DAC 공여국의 평균 비율은 15% 수준)

# ㅇ 시민사회의 COVID-19 대응

- 기 제시된 편람에 따르면, 364억원 중 73%가 자체자금 지출
- 기존 활동 국가를 대상으로 하되, 현지 네트워크 중심의 현장중심 사업을 추진하고 COVID-19 확산 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

#### ㅇ 국무조정실 연구 소개

- '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(CSOs) 활동 현황조사 및 협업전략 연구 ('21.7~11)'를 통해 정부의 개발 재원 및 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사회의 참여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함

### □ ODA 통합정보시스템 활성화 방향

(국조실 맹준호 성과지원과장 / EDCF 정수아 경협총괄부 대리)

# ㅇ 현황 및 문제점

- ODA 통합정보포털을 활용, 사업정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나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는 여전히 미흡
- 단계별 ODA 통합정보포털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 지속. (N-2년) 시행기관의 예비사업 입력이 저조하여 사업발굴 및 연계사업 확인 애로. (N-1년) 시행기관의 사업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해 사업연계를 위한 포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

- 6 -

#### ㅇ 개선방안

- 입력한 신규 예비사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 선제적, 자발적 연 계사업 발굴시, 인센티브 사업심사 시 추가 가점 부여 등 검토
- 시행계획 제출 전까지 유·무상 예비사업 정보입력\*을 통한 정보 공유 강화
  - \* ① 사업명, ② 사업유형, ③ 사업분야, ④ 국가명, ⑤ 연계희망 여부, ⑥ 담당자 연락처 등 최소 정보
- 차년도 시행계획 심의 후, 주관기관은 N-1년 시행계획 엑셀을 통합정보포털에 일괄 등록

#### o ODA 통합포털 운영 효율화 등 지원 강화

- 시행기관 ODA 담당자 대상 교육을 정기 실시(연 2회)하고 통합 정보포털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스템 활용도 제고
- 담당자 교육시 분기별 모니터링시스템 입력 교육뿐만 아니라 통합 정보포털을 활용한 자료 활용(사업정보 분석) 교육 병행

### o OECD 통계 취합 연 2회

- OECD DAC 회원국은 전년도 1.1~12.31 기간동안 발생한 약정 및 지출 기준으로 직전 연도 ODA 지원 실적 보고
- (1차 취합 : 잠정통계) 매년 2~3월, ODA 규모, 양다자 원조 지원액,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지원액 중심 보고
- (2차 취합 : 확정통계) 매년 7~8월, 잠정통계 제출본의 검증 및 ODA 사업건별 보고
- (최종 수정작업) '21년 말
- ('20년 통계 최종 확정) '22년 1월 중

# ㅇ 모니터링 입력과 연계한 통계 취합

- 국조실 주관, 매년 모니터링 4회차 입력내용을 기반으로 ODA 통계 산출
- 모니터링 입력 단계에서 정확한 입력이 향후 ODA 통계 정확성 과 직결
- 정확성 제고를 위해 3월 잠정통계, 7월 확정통계 제출 전. 시행기관 의 모니터링 기 입력내용을 통계정보 관리로 이관 후 검토 진행